

정치경제학(économie politique)에서 경제학(science économique)으로

— 프랑스에서 학과(discipline)로서 사회과학 탄생의 한 예 —

홍태영*

이 글은 19세기말 프랑스의 국민국가의 완성 속에서 등장하는 제반의 사회과학의 탄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예로서 경제학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아담 스미스에 의해 체계화된 경제학이 근대에 발생했을 당시의 모습은 이전의 계약론적 전통이라는 정치철학의 문제설정을 시장이라는 개념에 의해 극복하면서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진단 및 처방이라는 문제설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발달하는 정치경제학은 자신의 틀 내에 경제학적 문제설정 뿐만 아니라 철학적, 도덕적 문제설정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과학 그 자체임을 자처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은 19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공평화 및 민주주의 문제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의 문제설정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주류 정치경제학의 확립과정은 자신들과 다른 방법론과 개념을 가진 이들, 특히 월라스로 대표되는 집단을 철저하게 배제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월라스에 의한 한계효용 혁명은 정치경제학이 자신의 영역을 효용에 대한 학문으로 한정시키는 경제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여타의 부문은 다른 사회과학, 즉 사회학, 정치학 등의 영역으로 넘겨주게 된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전공분야는 정치사상 및 유럽정치이다. 주요저서로 <프랑스 제3 공화국의 자유주의적 기초>(Paris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1); <또띠빌과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한국정치학회보》 2001년 35집 3호; <정치적인 것의 발견 — 프랑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부활>, 《한국과 국제정치》 2001년 겨울호 등이 있다(연락처: 016-477-4430, E-mail: tyghong@hanmail.net).

1. 서론

월러스타인은 사회과학들의 탄생이 19세기 말 국민국가의 완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I. Wallerstein, 1994, 1장).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들은 각각 국민국가의 구성요소들인 국가, 시장, 사회의 영역을 담당하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회과학들의 분할이 현재의 시점에서 실제적인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현시기에 요구되는 사회과학은 이러한 분과화된 사회과학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보다 포괄적인 역사적 사회과학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분명 현시기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월러스타인의 문제지적에 대해 일정정도의 동의를 표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간학문적 연구를 통해 기존의 사회과학들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19세기 말 다양한 사회과학들이 형성되고 분화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현시기 월러스타인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19세기 프랑스에서 사회과학들이 탄생하는 시점들을 되짚어 보면서 답하려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최초의 사회과학으로 탄생한 경제학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푸코는 19세기말 학과들의 조직화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세의 신학, 법학들이 동일성의 놀이에 근거한 주석과 저자의 원리였다면, 19세기의 과정은 “담론의 생산에 대한 통제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한다(M. Foucault, 1993).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경제학계에서 배제되었으나, 한계효용 혁명을 이루어내면서 신고전과 경제학의 태두를 형성하고 20세기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왈라스(L. Walras)이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배제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직접 토로한다: “오늘날의 심리주의 철학은 주인처럼 자신의 제국을 지배하고 우리들은 그에 순종하고 있다. 그들은 아카데미와 교수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잡지들과 신문들을 제멋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책들을 칭송한다. 그들은 갖가지 쿤쿠르들을 개최하여 자신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L. Walras, 1868, p. 45.).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경제학이 성립되는 과정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연구대상과 방법론에 대한 확정의 작업이었고, 외부적으로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배제의 과정이었다.

하나의 학과라는 근대적 개념은 그 학과가 전제하는 가정, 방법론, 결과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제도화를 전제한다. 학과 형성을 위한 제도는 조직화된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집단의 공동체를 기본으로 하며, 그 공동체 내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설정의 방식과 금기의 방식, 연구의 도구와 가치평가의 전략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기통제의 절차를 확립한다. 학과는 자신의 설립자와 그의 텍스트를 통한 공식의 역사를 확립시키고, 또한 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통해 그리고 일정하게 규율화된 견습과정을 형성시킨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19세기말의 사회과학들은 20세기 근대 국민국가의 엘리트의 보급자로서 동시에 지식인의 형성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의 학과가 전제하는 포섭과 배제의 논리는 18세기 나아가 19세기까지도 잔존해 있던 백과사전적 지식 내지는 총체적인 지식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면서 타 학과와의 인식론적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시킨다. 학과로서 경제학의 형성과정은 그 전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2. 경제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정치경제학의 탄생

정치적 근대성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카르트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의견 즉 전통의 백지상태화이며 동시에 새로운 과학적, 철학적 지식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근거점으로서 코기토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기반한 근대 자연권론자들의 기본적인 문제설정은 어떻게 개인에서 출발하여 사회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었고, 그들이 찾은 해답은 정치였다. 세계의 질서자이자 당위의 명령자인 자연법 사상이라는 고대, 중세의 사상과 단절하면서 근대의 정치학은 모든 실체에 법을 부과하는 자연권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자연권에 근거한 근대의 계약론자, 즉 홉스에서 루소에 이르는 공통된 가정은 사회를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정치를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서 사회협약의 차이점들은 정치적 차이라기 보다는 정념(passion)을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국가 혹은 사회에 부여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사회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상이하게 구성해 내는 차이에 기인한다. 계약론 이후 몽테스키외, 헬베티우스, 나아가 벤담에 이르는 이들의 정치에 대한 문제설정은 더이상 사회의 제도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규제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 그들에게서는 구체적인 정치, 기술과 과학으로서 인식된 정치로의 회귀

가 등장하고, 사회 규제의 문제로서 법과 권력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치적 기술은 이익들을 결합하는 기술이다. 일반이익과 특수이익의 수렴의 확보가 입법의 목적이다. 벤담에게 사회적인 것의 규제로서 입법의 개념은 가장 완성된 형태로 등장한다(E. Halévy, 1995). 그는 이익의 인공적인 동일화에 대한 공리주의적 개념을 형성시킨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사고와 급격한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개념이 새로운 사회의 표현양식으로서 시장이다. 하지만 시장에 근거한 사회의 인식 역시 17, 18세기 정치철학 및 정신과학과 동일한 문제설정 즉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시장에 근거한 사회의 인식이라는 사고는 중세를 지배해 온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경제 개념과의 단절 속에서 형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필요에 응하는 재화생산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나 이윤추구의 활동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개념구조를 극복하면서 근대의 경제 개념은 확정된다.

하지만 초기에 형성된 보방(Vauban), 브와길베르(Boisguilbert)의 근대경제 개념은 정치산술학(l'arithmétique politique)의 틀 내에서 이해된다(H. Sée, 1997, 278-310쪽). 즉 경제를 권력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통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계산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계학 역시 통치의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고 그것은 재정정책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다. 정치경제학은 정치철학의 틀 내에서 형성된 것이고, 독립적 의미에서 경제학은 18세기까지 적어도 아담 스미스까지는 부재하다. 부에 대한 과학으로서 경제학의 발달은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의 성격과 연결되며 정치와 상업은 국가에 종속된 사회의 두 측면이다. 로크에서 스미스까지 영국 정치경제학의 형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정치의 새로운 실천, 사회에 대한 새로운 표상(représentation)의 의미이다.

아담 스미스는 정치산술학을 비판하면서 그의 사고를 국가(nation),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시민사회에서 출발시킨다. 정치에 종속된 정치경제학이 아닌 부의 과학으로서 경제학을 독립시킨다. 사회화의 공간은 이제 국가가 아닌 시장이 된다. 흄과 맨더빌이 개념화한 ‘이익/필요(intérêt/besoin)’의 문제설정이 아담 스미스에게 계승된다(A. Hirschman, 1980, pp. 33-42). 스미스는 sympathie 개념을 형성하면서 사회 질서에 대한 자연적 기초를 찾으려 한다. 그는 계약론자들처럼 정치나, 엘베티우스, 벤담처럼 입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도덕감성론]과 [국부론] 사이에서 명백한 단절은 보이지 않는다. [국부론]은 [도덕감성론] 내에서 직관으로 남아 있던 것이

확대 발전된 것이다(K. Haakonssen, 1998, p. 26). 경제문제의 발생은 [도덕감성론]의 문제설정 내에서도이다. 그의 경제에 대한 철학은 정신과학의 연장이나 보충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 내에서 그는 경제학자가 된 것이다. 그에게 경제는 분리된 과학적 탐구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가 실천되고 생각될 수 있는 사회의 본질이자 요약이다. 그는 철학적 필연에 의해 경제학자가 된 것이다(P. Rosanvallon, 1979, pp. 40-41). 이제 경제적 이데올로기(l'idéologie économique)는 근대사상의 중심에서 탄생한 것이다(L. Dumont, 1977). 철학으로서 경제학,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17, 18세기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즉 사회의 규제와 제도화라는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 점진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당시의 정치철학이 해결하지 못한 두가지 문제를 '시장' 개념을 통해 해결한다. 첫째는 국가들사이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이다. 시장개념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기초를 제공한다. 즉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경쟁개념은 이익들을 화해시키고, 국가들 사이 및 사회계급들 사이의 평등화의 도구가 된다(I. Hont and M. Ignatieff, 1983, pp. 10-11). 둘째, 사회협약에서 강제(obligation)의 문제이다. 홉스의 경우 좋은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것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절대국가였으며, 루소는 사회협약, 일반의지를 준수하는 강제는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긴다. 강제는 자유의 최고수준의 확정이다. 루소는 자유를 필연성의 내재화로 파악하면서 정치의 외재와 내재의 차이를 제거한다(R. Derathé, 1979, pp. 248-307). 개인과 정치체의 동일화라는 루소의 개념은 이후 보편과 특수 동일이라는 헤겔적 근대 국가 개념을 발생시킨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중심없는 사회라는 사고, 내부/외부, 개인/사회라는 구분을 제거한다. 시장메카니즘은 사회를 정치적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시장은 입법자 없는 사회질서의 규제법을 구성한다. 가치의 법칙은 상품사이의 교환관계, 상품교환관계로 이해되는 개인들사이의 관계를 아무런 외부적 개입없이 규제하게 된다. 사회에 대한 경제적 표상은 사회의 조화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도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입법과 정부형태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며, 이것은 도덕, 형이상학, 심리학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D. Winch, 1996, p. 22).

프랑스의 중농주의자(Physiocrates)의 경우 정치 개념의 제거를 통해 경제/정치 관

계의 극단화시킨다(J.-C., Perrot, 1992; J. Cartelier, 1991). 케네의 야망은 인간과 사물을 포함하는 과학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는 경제와 정치의 균형의 문제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융합, 지양, 정치의 합리화를 제의하면서, 정치를 없애고자 한다. 그에게는 정부는 하나의 기계로 파악된다. 자연적 질서는 단일화된 사회에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였고 자연적 질서의 보호자로서 전제군주를 옹호하면서 정치의 해소를 주장한다. 전제군주는 정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군주제는 정치의 완전한 사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분명 스미스는 가치-노동, 노동분업, 자유교환, 가격체계의 발명자가 아니라, 단지 그 시대의 작업의 성과를 종합한 것이지만, 그의 창조성은 경제의 영역에 철학과 정치의 실현을 옮겨 놓은 것에 있다. 아담 스미스는 헤겔 이전에 시민사회를 경제적으로 이해한 최초의 사상가이다.¹⁾ 물론 [국부론]에서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를 '시민사회'로 읽어야 한다. 그는 보다 'nation'이라는 용어의 사용하고 있으며, 'nation/시민사회'는 동일한 두 실체로 이해할 수 있다. 스미스는 법-정치적 의미의 시민사회를 경제적 의미로 이해하기 위해 'n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nation을 구성하는 것은 부(富)이며, nation을 노동분업과 필요의 사회경제적 체계에 의해 구성된 자유교환의 영역으로 이해하였다. 그에게서 결정적 구별은 '사회/자연상태'가 아닌 '사회/정부(nation/Etat)'였다.

스미스와 함께 시장개념의 변화를 겪는다. 시장은 교환의 특수한 장소가 아니라,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전사회이다. 시장은 경제규제의 메카니즘 이상으로서 사회조직의 메카니즘이며, 경제적 개념에 한정되지 않는 정치적, 사회학적 개념이다. 그는 nation이 필요의 체계로서 정의된다는 의미에서 인간관계를 상품관계로서 인식한다. 그는 경제를 사회의 기초로서, 시장을 사회질서의 작동자로서 파악한다. 그는 계약개념을 시장개념으로 대체하고, 사회를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중의 의미에서 혁명적이다. 가치법칙과 이윤율의 평준화의 메카니즘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당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익과 개인의 열정은 자본이 고용을 향해가는 것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한다. 노동의 최우위성을 제시하고, 시장은 자유

1) 헤겔에게서 '필요의 체계'로서 시민사회 개념은 스코틀랜드 경제학자들로부터 빌어온 것임은 그의 초기의 저서를 속에서 드러난다(N. Waszek, 1988; P. Chamley, 1963).

와 정의에 대한 동의로서 등장한다. 시장은 사회의 구조일 뿐만 아니라 발전의 수단이자 목표이다.

중농주의자들에게서 통치하는 것은 군주가 아니라, 자연적 질서의 법들이다.²⁾ 정치의 기능은 방어적, 즉 사회조직의 기초인 소유의 방어이다. 그러나, 자연적 질서라는 개념은 실천적으로 전능하고 적극적인 정부를 원하게 된다. 그것은 자연적 질서에 조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중농주의자들이 방어진 것은 질서라는 전제주의 내에서 모든 이익들이 조화되는 자유로운 경쟁이다. 즉 계획화 속에서 시장이다. 정치산술학의 전통적 영역위에 자유주의적 사고를 접목시킨 것이다. 18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이론들을 이러한 정치산술학에 대항하여 전개한다.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더이상 '개입주의/자유교환주의' 라는 틀 속에 있지 않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더이상 자연적 자유라는 단순한 체계 속에서 구성되지 않고, 진정한 시장 사회의 창조과정 속에 각인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국가는 시장을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문화적으로 동일한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것은 시장 사회의 필요조건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사소한 의미에서 자유방임이 아니라 시장의 건설과 보존의 의무를 갖는다. 간섭과 불간섭이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스미스는 정부의 행동을 시장사회로서 시민사회 건설의 계기로 파악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프랑스 혁명 이후 제시된 법치국가(Etat de droit)는 19세기의 과정 속에서 동일한 사회적 전망을 가지게 된다. 이제 자유주의의 세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2) 'physiocratie' 라는 단어를 중농주의라고 번역한 것은 그들에 대한 한정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이전의 중상주의에 대비되어 토지를 강조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드 메르시에가 언급하듯이 'physiocratie' 는 기본적으로 '자연통치(gouvernement de la nature)' 의 의미이다. '자연' 의 의미는 당시의 자연권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통치에서 어떠한 억압적 기제나 통제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그 자신의 국부론을 케네에게 헌정하려 하였듯이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이들 중농주의자들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3.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경제학의 분화

1) 공공 경제학(l' économie publique)

경제적 자유주의의 힘 속에서 사회과학의 첫 분과인 정치경제학이 탄생되게 된다. 아니 그 당시 정치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가 아니라 사회과학 그 자체였다. 프랑스에서 정치경제학의 탄생은 앞에서 보았던 중농주의 정치경제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주의적 경향 하에서 독특한 '공공경제학'이라는 개념과도 연관된다(P. Rosanvallon, 1990; R.B. Ekelund, Jr. & R.F. Hébert, 1978; Ids., 1973). 공공경제학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위신, 국가의 방위, 사회 질서, 국토 개발 등의 요구에 대하여 국부라는 차원에서 경제적 활동 영역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대변한다. 이 개념은 중농주의 이래 경제학자들에 의해 확립된 정치경제학, 즉 불간섭의 원칙에 근거한 시장의 완전한 자율성의 추구라는 사고에 대립하여 성장해 왔다.

공공경제학에 근거하여 경제영역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원칙이 천명되고 특히 개입의 전문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원칙이 실현된다. 이미 18세기 중반 루이 15세에 의해 '다리 및 도로 학교(Ecole des ponts et chaussées)'는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이후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통치를 거치면서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 '과학기술대학(Ecole polytechnique)' 및 '광산학교(Ecole des mines)'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된다.³⁾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기관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엘리트의 양성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경제학이 근거하는 이론적 출발점은 경제적 판단기준으로서 '공적 유용성(l'utilité publique)' 개념이다. 19세기 동안에 공공 경제학의 개념을 체계화했던 이는 뒤피(J. Dupuit)이다. 19세기 프랑스 정치경제학자들이 중농주의의 전통 속에서 자

3) 일반대학에 대비되어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특권화는 비슷한 시기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성립과 비추어 볼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독일의 베를린 대학 성립 당시 독일 철학자들, 즉 피히테, 셸링 등에 의해 주장된 교양인의 양성으로서 대학의 목적 확립과 그에 대한 특권화가 이루어진 반면, 프랑스는 일반대학의 상대화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특화가 두드러진다(A. Renaut, 1995).

연법으로 이해된 시장 개념과 그에 따른 자유무역의 원칙, 국가의 불간섭의 원칙을 유추해냈다면, 뒤피는 공적 유용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자유무역의 원칙과 국가 간섭의 원칙을 유추한다. 자유무역은 그것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프랑스 산업구조 상 필요한 것이며, 공공 사업을 통한 국가의 개입 역시 공적 유용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것이다(J. Dupuit, 1861). 과학기술대학 출신으로 다리 및 도로학교 연구원이었던 뒤피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당시의 정치경제학 자들에 대항하여 공공 경제학의 원칙을 확립시킨다. 도로의 통행요금과 관련한 글 속에서 그는 도로가 사기업의 소유일 경우 그 사기업은 가능한 한 최대의 수입을 얻기 위해 요금을 책정하는 반면에, 국가 소유일 경우 국가는 수입이 최소가 되더라도 보다 많은 효용을 끌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설정한다는 것을 설명한다(J. Dupuit, 1851; 1849). 이러한 효용 개념에 근거하여 뒤피는 세(J.-B. Say)를 비판한다. 뒤피에 따르면 세는 정치경제학의 문제를 사용가치 혹은 효용의 문제가 아닌 단지 교환가치의 문제로 파악하고 교환가치만을 측정단위로써 고려한다는 것이다(J. Dupuit, 1862). 뒤피는 정치경제학의 대상은 효용과 효용의 계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영역은 입법 즉 국가의 영역이라고 확정한다.⁴⁾ 그에 따라 뒤피는 정치경제학(l'économie politique)과 사회경제학(l'économie sociale)을 구분한다. 정치경제학은 효용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며 부의 증감을 고려하는 학문으로, 사회경제학은 도덕, 입법의 영역과 결합된 부의 분배의 영역을 담당하는 학문으로 분류된다(J. Dupuit, 1844).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구분은 뒤피 이전 1830년대 롯시(Rossi)에 의해 시작되었고, 뒤피를 거쳐 이후 왈라스에 이르게 된다. 이 흐름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국가 개입주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작용하지만, 실제로 19세기 중반 정치경제학자 집단 내에서는 소수를 이루는 경향이었다. 그것은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롯시의 공공경제학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7월 왕정의 기조(Guizot)에 의해 형성된 강력한 국가주의적 보호주의적 정책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었다(P. Rosanvallon, 1985). 반면에 1848년 혁명과 사회주의의 위협, 그리고 이후 나폴레옹 3세의 권위주의 정권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경제부문에 대한

4) 뒤피의 효용에 대한 개념은 이후 왈라스(L. Walras), 제봉스(Jevons) 등의 한계효용 학파의 기원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S. Howey, 1972).

간섭을 제한시키게 된다. 나폴레옹 3세의 민주주의적 전제주의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경제적 자유의 극대화라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은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2) 정치경제학의 지배와 배제

초기에 상대적으로 미약한 흐름을 형성한 정치경제학 전통은 독립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 보다는 공공경제학의 지배하에서 하나의 강좌를 개설하는 정도에서 출발한다. 정치경제학에 대한 첫 번째 강좌는 혁명 시기 파리 고등사범학교 내에 방데르몽드(Vandermonde)에게 맡겨지나 곧 사라진다.⁵⁾ 다시 정치경제학이 교육기관에 등장한 것은 왕정복고 시기 19세기 프랑스 정치경제학의 대부격이었던 쎬(Jean-Baptiste Say)에게 맡겨진 예술 및 직업 학교(Conservatoire des arts et métiers) 내의 '산업경제학(Economie industrielle)' 강의였다. 또한 1824년 같은 학교에 '산업경제와 역사'라는 강좌가 개설되고 블랑키(Adolphe Blanqui)에게 맡겨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경제학은 순수한 학문으로서라기 보다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신과학의 한 분야로서 공식교육기관에 정치경제학 강좌가 개설된 것은 1830년 7월 혁명 이후에서야이다.

1831년 콜레쥬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 정치경제학 교수직이 신설되고 쎬에게 맡겨진다. 19세기 동안에 이 교수직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프랑스 정치경제학의 흐름을 주도한다. 우선 쎬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케네의 중농주의와 아담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을 체계화시키려 한다.⁶⁾ 그는 19세기 프랑스 정치경제학 교과서의 기본적인 틀인 생산, 분배, 소비라는 3부의 체계를 마련하면서, 도덕과 구별된 과학으로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한다.⁷⁾ 과학으로서 정치경제학은 현상

5) 방데르몽드는 아직까지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거친 학자로서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계몽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경제학을 사교하는 이였다(J. Hecht, 1986).

6) 테르미도르 이후 이론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집단인 이데올로그들(Idéologues), 특히 로드레르(P.-L., Roederer)와 쎬은 산업(industrie) 개념을 통해 중농주의자들의 토지계급 옹호론을 거부하나 전반적인 이론구조는 수용한다(M. James, 1977: Ph., Gilles & J.-P., Berlan, 1991).

7) 쎬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정치경제학 원칙들의 혼동된 집합"들일 뿐이며, 그의 책은 "실증적 지식들과 이념들의 광범한 혼돈"이 존재한다고 비판하면서,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과 방법론에 대한 명확화를 시도한다(J.-B., Say, 1861).

들을 관통하는 법칙들을 발견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실제적인 정치경제학으로서 기업가의 활동 및 시민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J.-B. Say, 1848; Ph. Steiner, 1986; Id., 1990). 그는 당시 영국의 리카르도의 경제학이 시민들과 기업가들이 접근불가능한 추상화된 경제학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리카르도가 수용하는 수학적 방법에 따른 추론의 방법이나 통계학 내지는 역사적 방법에 의한 경제학을 거부하고 관찰에 의한 경험적 방법을 통한 경제학을 주장한다. 쉐에게 정치경제학은 정치 및 도덕으로부터 명확히 구분된다. 쉐를 이어 폴레쥬 드 프랑스 정치경제학 교수직을 승계된 롯시(Rossi)에게도 도덕과 명확히 구분된 정치경제학의 체계를 세우려는 시도는 지속된다. 롯시는 더 나아가 정치경제학을 '합리적 정치경제학(l'économie politique rationnelle)'과 '응용 정치경제학(l'économie politique appliquée)'으로 세분화하면서 합리적 정치경제학 내에서 리카르도의 연역적 방법을 수용한다(P. Rossi, 1865; F. Vatin, 1998, pp. 103-127).

하지만 롯시의 폴레쥬 드 프랑스 정치경제학 교수직을 승계한 슈발리에(M. Chevalier), 그리고 그를 뒤이은 보드리야르(H. Baudrillart)에 이르러 프랑스 정치경제학은 전환점을 맞는다. 그것은 정치경제학과 도덕과의 관계에 대한 강조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의 계기는 무엇보다도 궁핍화의 문제가 산업의 발달 속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또한 생산과 소비의 자동적인 균형이라는 '쉐의 법칙'에 대한 맬더스(T. Malthus)의 비판이 궁핍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도덕이라는 문제설정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G. Proccacci, 1993, pp. 105-131). 경제질서 속에서 궁핍화의 문제는 부의 생산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오히려 부의 증식에 장애물로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핍화의 문제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의 범위의 넘는 문제로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채택한 방식은 그와 정반대의 길이었다. 맬더스가 제기된 도덕이라는 문제설정을 정치경제학의 틀내로 끌어들이면서 정치경제학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총체적인 답변이라는 방식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쉐와 롯시가 정치경제학을 제한시키면서 과학화의 길을 모색하려 했던 반면에 오히려 그들은 이전의 중농주의적 문제설정으로 회귀한 것이었다.

더구나 1848년 혁명과 더불어 사회주의자들의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에 대한 직접적 공격, 좌파 공화주의자들에 의한 국립작업장의 설치에 의한 노동에의 권리(droit au travail) 요구 등은 당시 프랑스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자들에게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궁핍화의 문제를 정치경제학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는 정치경제학자들의 시도는 당시의 정세 속에서 강요된 결과였다. 슈발리에에는 정치경제학을 물질적 이해관계의 과학으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정치경제학이 노동자계급의 물질적, 정신적, 지적인 증진의 임무를 갖는다고 강조한다(M. Chevalier, 1855, p. 31). 정치경제학의 임무는 '정의의 관점에서 인간관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학문인 것이다(M. Chevalier, 1854, p. XIV). 슈발리에가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에 이데올로기로 들어간 후 그 자리를 이은 보드리야르는 폴레쥬 드 프랑스의 정치경제학 담당교수로서 또한 정치경제학자들 집단에 의해 정기적으로 간행되던 [경제학자지](*Journal des économistes*)의 편집장으로서 당시 정치경제학자들의 담론을 지배한다. 그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로서 정치경제학에 접근한다. 그에 의해 19세기 중반의 프랑스 정치경제학 담론은 지배되고, 정치경제학은 도덕과의 관련성이 강조된다.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집단을 형성하는 계기는 영국의 자유무역 운동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자유무역 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이다. 이 운동을 통해 그들은 1845년 정치경제학회(Société d'économie politique)를 성립시키고, 정치경제학을 정교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경제학자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한다. 최초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1850년 수십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정치경제학 사전]이다.⁸⁾ 19세기 동안에 정치경제학의 지속적인 근거로 인용될 이 사전을 통해 정치경제학자들은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 방법론 등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형성하려 한다. 이들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 지적 무기는 자유무역주의로 표현되는 '세속화되고 경박한' 형태의 경제적 자유주의이다.⁹⁾ 하지만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시기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체제의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8) [경제학자지]는 1843년 제1호를 내면서 년4회 정기적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단없이 발간되는 잡지이다. 또한 정치경제학 사전은 2,000여 페이지에 이르고 수백 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 사전은 19세기 내 수차례의 재판을 거듭한다(Ch. Coquelin et Guillaumin, 1850).

9) '세속화되고 경박한'이라는 표현은 슈페터가 자신의 [경제 분석사]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이론적으로 정교하지 못하고 어떠한 이론적 발전도 가져오지 못한 이 시기 프랑스 정치경제학자들에게 사용한 것이다. 슈페터는 자신의 [경제분석사]에 이 시기의 경제학자들에게 단 몇 줄을 할애할 뿐이다. 또한 프랑스의 경제학 이론사를 다룬 지드(Gide)의 [경제사상사]에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론적 천박성을 비판하고 있다(J. Schumpeter, 1972; Ch. Gide et Ch. Rist, 1944).

제공한다.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은 또끄빌이 정의한 민주주의적 전제정의 전형을 띠고 있었고, 그것은 인민의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정치적 자유의 제한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A. de Tocqueville, 1961). 1860년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정치경제학자들의 요구가 수용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자유무역에 대한 주장은 정교한 경제학적 분석이나 이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소유와 교환이 모두 자연권이라는 일종의 철학적 담론에 근거하여 전개되었고, 그에 따라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교환을 제한하려는 보호무역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까지 하였다.¹⁰⁾

소유와 교환이 자연권이라는 담론은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에게는 당시에 등장하는 사회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여 동일하게 자본주의적 시장질서를 정당화하고 자유무역주의 운동을 전개시키는 근거를 형성한다. 정치경제학이 경제적 분석과 자체의 이론이 아닌 자연법 철학에 근거하게 됨에 따라, 비록 쉐가 발명한 정치경제학의 틀을 이용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중농주의에 의존하는 철학적 담론으로 흐르게 된다. 그들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효용(l'utile)은 정의(le juste)의 문제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 Baudrillart, 1860). 따라서 효용만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기존의 정치경제학은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도덕에 종속되어 새롭게 성립되어야 한다. 이제 정치경제학은 효용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를 포괄하는 학문으로서 부의 생산, 유통, 소비, 분배의 문제를 취급하고 나아가 “국민과 사회의 복지에 대한 과학”으로서 정립되게 되는 것이다(M. Chevalier, 1868).

이러한 정치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확대를 가져왔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정치경제학 방법론에 있어서 변화로 나타났다. 쉐에게 정치경제학은 하나의 경험 과학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역사나 통계적 방법은 물론 나아가 영국의 리카르도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한 수학에 근거한 연역적 방법은 관찰과 분석을 통해 경험과학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정치경제학에게는 부적당한 방법으로서 거부되었다. 도덕과 정치로부터 정치경제학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론은 “경험과학으로서 경험적 방법”만이 가능할 뿐이었다(J.-B. Say, 1848, pp. 140-141). 하지만 19세기 중반 도덕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경향의 강화는

10) 이러한 자연권이라는 담론은 이 시기 정치경제학자들이 쉐와 로씨보다도 18세기 중농주의에 보다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F. Bastiat, 1849, pp. 16-21).

오히려 역사 및 통계학적 방법의 중시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역사 및 통계학에 대한 정치경제학 방법론으로서 중시는 이 시기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영국의 정치경제학 특히 비슷한 시기 리카르도의 정치경제학이 상정하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에 대한 전제의 거부와 동시에 구체적 사회의 구체적 인간이라는 전제를 수용하기 위함이었다.¹¹⁾ 또한 이러한 경향은 정치경제학을 단순한 추론의 과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인 사회과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였다. 따라서 수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정치경제학을 시도하려던 루시 및 이후의 쿠르노(A. Cournot) 등은 당시의 프랑스 주류 정치경제학 집단들에 의해 지속적인 배제의 대상이 된다.¹²⁾ [경제학자지]에는 어떠한 쿠르노의 글도 실리지 못하였고, 다만 한차례 쿠르노에 대한 비판의 글만이 게재되었을 뿐이다.¹³⁾

3) 정치경제학 비판과 분화

19세기 중반의 프랑스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에게 주요한 쟁점은 1848년 혁명을 통해 전개된 사회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관계의 옹호였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상품교환관계가 단순히 효용(l'utile)만을 생산하는 물질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juste)는 것을 밝혀 내려 했

11) 영국의 리카르도 및 그에 영향을 받은 루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독일의 리스트(List) 및 역사학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호적인 경향을 보인다(H. Baudrillard, 1865; 1867; Y. Breton, 1988; A. Arnaud; M. Barrillon et M. Benrediane, 1991).

12) 쿠르노의 경우 그 출발은 기계공학도였으며, 이후 라플라스(Laplace) 등의 수학자의 영향을 받아 정치경제학에 수학을 적용시키려 한다. 동일한 과학기술대학(l'Ecole polytechnique) 출신으로 콩트(A. Comte)와 차이는 주목할 만 하다. 즉 콩트가 사회과학에서 수학적 방법의 거부와 함께 물리학을 수용하면서 사회학을 사회물리학(physique sociale)이라고 칭하였던 반면에, 쿠르노는 사회과학 특히 정치경제학에 수학적 방법을 수용하여 이후 경제학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19세기 중반 뒤피, 쿠르노 등은 이후 왈라스의 경제학에서 재발견된다(F. Vatin, 1998; C. Ménard, 1978).

13) 한 필자는 쿠르노의 *Recherches sur les principes mathématiques de la théorie des richesses*(1838)와 *Principes de la théorie des richesses*(1863)에 대한 평을 하면서 “쿠르노의 시간이 리카르도에 멈췄다”고 비판한다(R. de Fontenay, 1864).

던 것이다. 자본주의적 상품교환관계 및 노동/자본관계는 그들이 근거하는 자연법적 질서에 순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며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사회의 효용을 생산하기 때문에 또한 정당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뉘피가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을 비판할 때 주요 논점은 소유가 자연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효용성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효용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체계화한 이가 왈라스(L. Walras)이다. 왈라스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개념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배제의 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그의 지적인 작업은 프랑스보다는 스위스의 로잔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왈라스는 루시가 구분했던 정치경제학 체계를 수용한다: 순수 정치경제학은 사회적 부 자체에 관한 학문으로서, 응용정치경제학은 농업, 공업, 상업에서의 사회적 부의 생산, 즉 인간과 재화와의 관계에 관한 학문으로서, 사회경제학은 부의 분배에 관련한 학문으로 구분한다.¹⁴⁾ 왈라스는 순수 정치경제학은 절대경쟁이라는 가정된 상황하에서의 가격의 결정에 대한 이론이며, 그것은 사회적 부에 관한 이론으로서 기계적 또한 물리-수학적 과학으로 정의된다(L. Walras, 1988, p. 11). 따라서 수학적 방법은 경험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합리적 방법으로서 경제학의 방법이 된다.

정치경제학과 도덕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정당화를 효용의 측면과 정의의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내려 하고, 극단적인 경제적인 자유라는 요구를 통해 사회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의 경제 영역에 간섭을 거부했던 유토피아적 환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뉘피와 그에 이은 왈라스에게 순수 경제학의 대상은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부의 생산이며, 그 영역은 정의라는 도덕의 문제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생산의 영역은 효용의 극대화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후에 정의의 문제 즉 도덕의 영역이 형성된다. “사회의 일반적인 조건들의 제도라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이 지점에 등장한다(L. Walras, 1868, p. 172).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연대적인 운명을 성취해내는 모든 도덕적 인간들의 총체로서 왈라스에게 표상된다. 원칙과 대상의 명확한 구분에 근거하여 왈라스는

14) 왈라스에 의한 정치경제학의 세가지 체계는 1860년대 초 이래 지속적으로 정교화된다(J.P. Potier: P. Dockès, 1996).

경제학과 여타의 사회과학의 경계를 확정짓는다: “두 종류의 사회적 사실과 관계가 있다: 경제적 사실과 관계 그리고 도덕적 사실과 관계, 이 사실들과 관계들의 두가지 조직의 원칙이 있다. 효용과 이윤이라는 경제적 질서의 원칙과 선과 정의라는 도덕적 질서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로부터 두 개의 사회과학 혹은 두 개의 이론이 도출된다. 하나는 정치경제학(l'économie politique)인 경제학(science économique), 또 다른 하나는 사회과학(science sociale)인 정신과학(science morale)이 그것이다”(Ibid., pp. 133-134). 경제학은 순수정치경제학과 응용경제학까지를 포괄하면서 교환과 산업에 관한 이론을 그 대상으로 하며, 사회과학은 소유, 조세, 가족, 정부의 문제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소유의 문제를 왈라스는 경제학의 대상이 아닌 사회과학의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점이다. 당시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서술하면서 소유의 문제는 쉐의 구분법에 의해 생산의 장에서 취급하면서 기본적 전제로서 간주하고 있었다. 즉 소유는 자연권으로서 간주되면서 정치경제학은 소유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었다(H. Baudrillart, 1865, p. 21; J. Garnier, 1860, p. 15).¹⁵⁾ 반면에 왈라스는 소유의 문제를 도덕 내지는 정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한다. 그는 소유에 대한 이론은 “사회적 부의 영유와 관련하여 도덕적 인간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며 “사회 내에서의 인간들 사이의 부의 균등한 배분의 조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유는 생산과 교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들의 결과물로서 정의의 관점에서 수정될 수 있고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왈라스의 문제설정은 19세기 동안에 대립하고 있었던 공리주의적 정치경제학과 사회주의를 동시에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였다.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은 국가를 고려해 넣지 않고 개인만을 사고하는 반면에 루이 블랑의 사회주의는 개인에 대한 고려없이 국가만을 사고하는 것이다(L. Walras, 1874, pp. 43, 188). 왈라스는 효용의 관점에서 현재의 자본주의적 체제는 다른 어떠한 체제보다 효율적이지만,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 조직화의 상위의 법칙”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그 법칙은 “개인의 권리는 불평등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자유 속에서

15) 19세기 중반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씌여진 [정치경제학 원리]의 경우 사회적 부에 관한 이론과 사회경제학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쿠르노 역시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A. Cournot, 1981, p. 19n).

행위하는 것이고, 국가의 권리는 평등한 조건을 확립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L. Walras, 1868, p. 182).

왈라스의 정치경제학과 사회과학의 구분은 경제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의 방법론에 대한 명확화와 함께 그 연구대상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분은 왈라스 자신이 행한 1870년대 한계효용의 법칙을 발견을 거치면서 더욱 정교화된다. 이제 경제학은 도덕의 영역을 제거하면서 경제과학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고전과 경제학에서 신고전과 경제학으로의 이행을 의미했다(D. Winch, 1972).

4. 결론

중세의 신학, 근대 초기의 정치철학 그리고 아담 스미스 이후 정치경제학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진단이라는 목표 속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근대의 민주주의의 발달 및 자본주의의 성장은 사회의 분화 속에서 베버의 말처럼 합리화의 과정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의 과정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근대사회의 유지와 통치를 위해 권력은 가시적 형태보다는 과학의 권위에 기반한 진리효과를 이용한다(M. Foucault, 외, 1994). 프랑스 혁명 이후 재편되고 발전되기 시작하는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은 순수하게 전문적인 직업적 정향을 갖게 되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학자(savants)’라는 직업을 갖는 이들을 탄생시키게 된다(N. et J. Dhombres, 1989). 또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1848년 혁명을 계기로 등장하는 ‘사회적인 것(le social)’, 즉 민주주의의 발달과 사회문제들의 발생이라는 조건 속에서 사회의 조직화의 특수한 양태로서 사회적인 것의 발생은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상실케 하였다(J. Donzelot, 1994).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해결책의 모색이 1870년대 이후 성립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국민국가의 완성태로서 제3공화국의 임무였다. ‘사회적 연대(solidarité)’라는 개념의 형성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보장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였고, 또 다른 한편에서 경제학에 대한 한계 비판과 함께 사회학의 성립을 의미했다. 뒤르카임의 사회학의 형성은 19세기를 지배했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한계 설정과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응이었

다.¹⁶⁾ 19세기말 프랑스의 대학들에는 자신들의 연구대상과 방법론을 갖는 새로운 사회과학들이 자리잡게 된다. 1877년 정치경제학은 법과대학에 정식교과목으로 채택되고, 1883년 근현대사, 1885년 심리학, 1887년 사회학, 교육학, 1897년 정치사상사 교수직이 탄생하여 공식적으로 하나의 학과들로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인문사회과학들의 학과로서의 체계화 과정은 프랑스에 한정된 현상이 아닌 국제적 현상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로 없다. 서구에서 학과로서 제반 인문 사회과학들의 정착과정 속에서 국제적으로는 국제학회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도 이 시기 목격되는 현상이다. 물론 한 학문이 현대적 의미에서 하나의 학과로서 자리잡는다는 것은 그 명칭의 문제 이상으로 그 자신의 학과에서 학위, 특히 박사학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이다. 이러한 과정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19세기 말 성립된 이러한 제반의 사회과학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그 위기를 맞게 된다. 글 서두에서 언급한 윌러스타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사회과학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은 사회과학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19세기말 사회과학이 탄생할 당시의 조건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과학의 탄생이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그것은 곧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응하고 복지국가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20세기 말에 이르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복지국가가 그 위기는 맞는 상황은 19세기 말에 탄생한 사회과학이 그 임무를 다 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16) 뒤르카임의 사회학 역시 자유주의의 한 형태임은 분명하다. 벨라미는 187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의 자유주의를 '윤리적 자유주의(ethical liberalism)', 이후의 자유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로 구분한다. 윤리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철학적 테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자유의 조화로운 공존을 가정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이러한 전환은 위에서 살핀 경제학의 문제설정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R. Bellamy, 1992). 또한 로그는 1870년을 기점으로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철학적 문제설정에서 사회학적 문제설정으로 변화하였음을 지적한다(W. Logue, 1983).

참고문헌

- Arnaud, A., Barrillon, M. et Benrediane, M. (1991),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 la neutralisation de l'histoire dans l'économie politique libérale", *Revue économique*, N° 2.
- Bastiat, F. (1849), *Protectionnisme et Communisme*, Paris: Guillaumin.
- Baudrillart, H. (1860), *Des rapports de la morale et de l'économie politique*, Paris: Guillaumin.
- _____ (1865), "De la nécessité de l'économie politique pour l'histoire", *Journal des économistes*, T. 45.
- _____ (1867), "De l'histoire de l'économie politique", *Ibid.*, N° 13.
- _____ (1865), *Manuel d'économie politique*, 2e éd., Paris: Guillaumin.
- Bellamy, R. (1992), *Liberalism and Modern Society*, Oxford: Polity.
- Breton, Y. (1988), "Les économistes français et les écoles historiques allemandes: rencontre entre l'économie politique et l'histoire 1800-1914", *Histoire, Économie et Société*, 3e trimestre.
- Cartelier, J. (1991), "L'introduction: l'économie politique de François Quesnay ou l'utopie du Royaume agricole", F. Quesnay, *Physiocratie*, Paris: Flammarion.
- Chamley, P. (1963), *Économie politique et philosophie chez Stuart et Hegel*, Paris: Dalloz.
- Chevalier, M. (1855), "De la grandeur de l'industrie moderne et sa faiblesse, 1840-1841", *Cours d'économie politique fait au Collège de France*, 2 vol., Paris: Capelle.
- _____ (1854), "Introduction", L. Droz, *Économie politique ou principe de la science des richesses*, 3e éd., Paris: Jules Renouard.
- _____ (1868), "La richesse considérée au point de vue moral et politique", *Journal des économistes*, janvier.
- Coquelin, Ch. et Guillaumin (1850), *Dictionnaire d'économie politique*, Paris: Guillaumin.
- Cournot, A. (1981), *Principes de la théorie des richesses* (1863), éd., par G. Jorland, *Oeuvres complètes*, Paris: Vrin.
- Derathé, R. (1979), *Jean-Jacques Rousseau et la science politique de son temps*, Paris: Vrin.
- Dhombres, N. et J. (1989), *Science et savants en France. Naissance d'un nouveau pouvoir (1793-1824)*, Paris: Payot.
- Dockès, P. (1996), *La société n'est pas un pique-nique, Léon Walras et la l'économie sociale*, Paris: Economica.
- Donzelot, J. (1994), *L'invention du social, essai sur le déclin des passions politiques*, Paris: Seuil.
- Dumont, L. (1997), *Homo aequalis, I. Genèse et épanouissement de l'idéologie économique*, Paris: Gallimard.
- Dupuit, J. (1844), "De la mesure de l'utilité des travaux publics", *Annales des ponts et chaussées*, Tome 8.
- _____ (1851), "Péage", "Routes et chemins", Ch. Coquelin & U.-G., Guillaumin, dir., *Dictionnaire de l'économie politique*, Paris: Guillaumin.

- _____ (1849), "De l'influence des péages sur l'utilité des voies de communication", *Annales des ponts et chaussées*, 2e série, Tome 17.
- _____ (1861), *La liberté commerciale. Son principe et ses conséquences*, Paris: Guillaumin.
- _____ (1862), "l'utilité et sa mesure. De l'utilité publique", *Journal des économistes*, Tome 36.
- Ekelund, Jr. R.B. & Hébert, R.F.(1978), "French engineers, welfare economics and public fina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0: 4.
- _____ (1973), "Public economics at the école des pont et chaussées: 1830-1850",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
- de Fontenay, R. (1864), "Principes de la théorie des richesses, par M. Cournot", *Journal des économistes*, T. 4.
- Foucault, M.(1993), 이정우 옮김,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 _____ 외 (1994), 정일준 편역,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서울: 새물결.
- Garnier, J. (1860), *Traité d'économie politique*, 4e éd., Paris: Guillaumin.
- Gide, Ch. et Rist, Ch. (1944), *Histoire des doctrines économiques, depuis les Physiocrates jusqu'à nos jours*, 6e éd., Paris: Sirey.
- Gilles, Ph., & Berlan, J.-P. (1991), "Economie, Histoire et genèse de l'économie politique, Quesnay, Turgot et Condorcet, Say, Sismondi", *Revue Economique*, Vol. 42, No. 2.
- Halévy, E. (1995), *La formation du radicalisme philosophique, III. Le radicalisme philosophique*, 1er éd. 1904, Paris: puf.
- Haakonssen, K. (1998), *L'art du législateur, la jurisprudence naturelle de David Hume et d'Adam Smith* (1981), traduit par F. Kearns, Paris: puf.
- Hecht, J. (1986), "Une héritière des Lumières, de la Physiocratie et de l'Idéologie: la première chaire française d'économie politique (1795)", *Economie et sociétés*, 20.
- Hirschman, A. (1980), *Les passions et les intérêts*, 1er éd., 1977, Paris: puf.
- Hont, I. and Ignatieff, L. (1983), "Needs and justice in the *Wealth of Nations*: an introductory essay", I. Hont and M. Ignatieff, ed., *Wealth and Virtue, The Shaping of Political Economy in the Scottish Enlighte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wey, R.S. (1972), "The origins of Marginalism",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4, N° 2.
- James, M. (1997), "Pierre-Louis Roederer; Jean-Baptiste Say, and the concept of indistir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9, No. 4; J.-C., Perrot (1992), "Economie politique", *Une histoire intellectuelle de l'économie politique, XVIIe-XVIIIe siècle* Paris: Editions de l'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 Logue, W. (1983), *From Philosophy to sociology, The evolution of french liberalism, 1870-1914*, Illinoi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Ménard, C. (1978), *La formation d'une rationalité économique: A.A. Cournot*, Paris: Flammarion.

- Potier, J.P., "Classification des sciences et divisions de l'économie politique et sociale dans l'oeuvre de L. Walras: une tentative de reconstruction", N° spécial *Walras, Economie et Sociétés*.
- Procacci, G. (1993), *Gouverner la misère, la question sociale en France 1789-1848*, Paris: Seuil.
- Renaut, A. (1995), *Les révolutions de l'université, Essai sur la modernisation de la culture*, Paris: Calmann-Lévy.
- Rosanvallon, P. (1979), *Le libéralisme économique, Histoire de l'idée de marché*, Paris: Seuil.
- _____ (1985), *Le moment Guizot*, Paris: Gallimard.
- _____ (1990), *L'Etat en France de 1789 à nos jours*, Paris: Seuil.
- Rossi, P. (1865), "2e leçon (1835)", *Cours d'économie politique, professé au Collège de France*, 1er vol., 4e éd., Paris: Guillaumin.
- Say, J.-B., "Discours préliminaire", *Traité d'économie politique ou simple exposition de la manière dont se forment, se distribuent et se consomment les richesses*, 7e éd., Paris: Guillaumin.
- _____ (1848), "Discours d'ouverture du cours d'économie politique", *Oeuvres diverses avec des notes par Ch. Comte*, Paris: Guillaumin.
- Schumpeter, J. (1972), *Esquisse d'une histoire de la science économique des origines jusqu'au début du XXe siècle*, Paris: Dalloz.
- Sée, H. (1997), 나정원 옮김, 《17세기 프랑스 정치사상》, 서울: 민음사.
- Steiner, Ph. (1986), "J.B. Say et l'enseignement de l'économie politique en France (1816-1832)", *Economies et Sociétés*, No. 6.
- _____ (1990), "L'économie politique contre les systèmes: quelques remarques sur la méthode de Jean-Baptiste Say", *Revue d'économie politique*.
- de Tocqueville, A. (1961),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Paris: Gallimard.
- Vatin, F. (1998), *Economie politique et économie naturelle chez Antoine-Augustin Cournot*, Paris: puf.
- Walras, L. (1868), *Recherche de l'idéal social*, Paris: Guillaumin.
- _____ (1988), *E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pure ou Théorie de la richesse sociale* (1874), *Oeuvres économiques complètes de Auguste et Léon Walras*, VIII, Paris: Economica.
- _____ (1874), *E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pure ou Théorie de la richesse sociale*, *Ibid.*.
- Wallerstein, I. (1994), 성백용 옮김,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서울: 창작과 비평사.
- Waszek, N. (1988), *The scottish enlightenment and Hegel's account of civil societ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Winch, D. (1972), "Marginalism and the boundaries of Economic Scienc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4, N° 2.
- _____ (1996), *Riches and poverty, An intellectual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in Britain 1750-18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om Political Economy to Economic Science
— An Example of the Birth of Social Sciences as Discipline in Franc —

Hong, Tai-Young*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the formation of economic science which is an example of the birth of social sciences in the establishment of Nation-State in the 19th century. The economic science in Adam Smith has problematic of total knowledge, analysis and prescription of society, surmounting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of contractual theory by the conception of market. Therefore, political economy in the mid-19th century doesn't include only a problematic of economic science, but also that of philosophy and of moral. This is not as a social science, but the social science as such. This political economy wanted to solve the problems of pauperism and democracy through economic liberalism.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is political economy is also that of exclusion of other groups who have different methodology and conception of political economy, particularly that of Leon Walras. But the marginal Revolution of Walras is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economic science as a science of utility, and another parts is surrendered in the political science and the sociology.

*Senior Researcher of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SNU. Major Field: Political Theory, European Politics. Major Publication: *Les fondements libéraux de la IIIe République* (Thèse de doctorat de l'E.H.E.S.S. 2001); "Tocqueville and the paradox of democracy"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5, No. 3, 2001. E-mail: tyghong@hanmail.net.